

보도 일시	2022. 8. 9.(화) 즉시배포		
담당 부서	행안부 재난관리실 자연재난대응과	책임자	과 장 강성희 (044-205-5230)
		담당자	사무관 주 으뜸 (044-205-5234)

尹 대통령,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 개최 - “신속한 응급복구 실시, 국민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응” 지시 -
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본부장 이상민)는 어제^{8일} 새벽부터 시작된 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주재에서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하였다.
- 어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대책, 서울시 피해현황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였으며, 중대본 비상 3단계로 격상하고, 위기경보 단계도 “심각”으로 상향하여 대응하고 있다.
 - ※중대본 비상 1단계 가동(8.8, 07:30), 2단계 격상(8.8, 21:30), 3단계 격상(8.9, 01:00) 대응 중
- 윤석열 대통령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고, 관계부처,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역량을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,
 - 당분간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심지내 하천범람이 우려되는 곳은 즉시 대피토록 하고, 역류발생·도로침수 등 피해발생지역은 현장을 신속히 통제할 것과

- 피해지역은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하되, 소방 구조대원들과 지자체 현장 공무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.
 - 또한, 지하철도, 하천변,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, 산사태 우려지역, 산불피해지역 및 붕괴위험지역 주민의 사전대피는 우선적으로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.
- 아울러 윤 대통령은 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인 만큼,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총력을 다할 것”을 주문하면서, “호우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”을 지시하였다.